



1959

전차가 다니지 않던 구릉지 금호동에 시내버스가 개통되자 온 주민들이 뿔뿔이 나환영했다.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시내버스

글 조보희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버스 전용차선과 환승할인을 이용할 때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내버스의 시작은 미군들이 버리고 간 차량의 엔진에 드럼통을 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역 시내버스 개통식에는 구름 떼 같이 시민들이 모여들어 환영식을 열 정도였습니다. 만원 버스에서 '오라이'를 외치는 안내양의 모습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세월과 함께 시민의 발이 되어온 시내버스의 변화를 모아 봤습니다. ♡

1961



버스에 오르는 환승들을 지켜보는 버스 안내양

1966



서울역사박물관 제공

시내버스 승차권 매표소



한지규 제공

시내버스와 전차가 함께 다니는 서울 남대문로 모습

1968



1973

국기록원 제공

고속버스 안내양

1984



버스 안내양이 사라진 계기가 된 요금 선불제

1978



나경택 제공

만원 버스에 힘겹게 매달린 버스 안내양

1987



로심 시위로 한데 뭉쳐진 서울 시내버스

2012



전용차선을 달리는 서울 시내버스